결정적 한 방

(행26:1~32)

24.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5.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26.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27.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8.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결정적 한 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1) 상대는 11전 11KO승을 자랑하는 파나마의 신예 복서 헥토르 카라스키야였다.
1회 난타전이 끝나고 2회가 시작되자 홍수환은 카라스키야의 무차별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고꾸라졌다. 거푸 4번이나 쓰러졌지만 홍수환은 일어서고 또 일어섰다. 2라운드를 버틴 것은 기적이었다. 그러나 3라운드 공이 울린 지 정확히 48초 뒤, 홍수환은 카라스키야를 캔버스에 길게 눕혔다. 프로복싱 사상 유례가 없었던 4전 5기의 신화는 이렇게 이뤄졌다.

홍수환 전 권투선수는 1974년 24살 남아프리카 더바에서 아놀드 테일러를 상대로 세계 밴텀급 타이틀을 석권하며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후 권투의 인기가 전국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전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던 홍수환 선수로부터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기적 같은 승전보를 전해 듣게 됩니다.

1977년 27살이던 때 이번에는 파나마에서 세계 주니어 페더급 정상의 자리를 놓고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상대는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카라스키야였습니다. 최초의 두 체급 세계 타이틀을 놓고 벌이는 일전에 대한민국 전체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대선수 카라스키야는 11전 11승의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두려운

것은 11승 모두 KO승이라는 겁니다. 시합은 예상대로 흘러가면서 홍수환 선수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카라스키야의 매운 주먹 앞에 4번이나 맥없이 다운되었습니다. 당시 텔레비전 앞에 옹기종기 모여 그를 응원하던 한국의 국민들의 마음에도 이젠 홍수환선수의 패색이 짙어만 가고 있을 때 해설을 하던 캐스터마저 "홍수환 선수! 네 역시 역부족이군요"라는 멘트로 패배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때 대한민국을 환호성으로 뒤집어놓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오뚝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네 번의 다운 뒤에 다시 일어난 홍수환 선수는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카라스키야를 향해 한 방을 날렸고 그 한 방을 맞고 바닥에 쓰러진 카라스키야는 더 이상 매트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경기가 끝이 납니다.

이 경기 후 나온 유명한 말이 있지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머나먼 파나마에서 국제전화를 통해 들려온 홍수환 선수의 촌스럽고 정겨운 승전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통화가 우리나라 역사상 첫 번째 국제통화였다고 합니다.

오뚝이 같은 정신으로 이루어 낸 기적 같은 승리의 주인공으로서 여기저기서 초청받아 행하는 강연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홍수환 선수가 외치는 모토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방은 있다'입니다. 듣기만 해도 시원한 이 모토! 그렇지요. 홍수환 선수라면 이 모토에 대해 사용특허를 신청해도 잘못된 일이 아니지요. 결정적 한 방으로 11전 11KO승의 카라스키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환희와 열광으로 KO시킨 한 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실입니다만 그 뒤로 홍수환 선수에게서 또 다시 그런 정도의 메가톤급 한 방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 정도 한 방은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2) 카라스키야를 향해 날렸던 홍수환 선수의 결정적 한 방이 날마다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결정적 한 방이 일상적인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결정적 한 방의 주인공들이어야 합니다. 11전 11KO승의 카라스키야 같은 라이벌을 향해 날마다 결정적 한 방을 날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결정적으로 한 방 날려 KO 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란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땅 위의 모든 가치들입니다. 세상 가치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지독하게 좋아할 때 우리는 사족을 못 쓸 만큼 좋아한다고 표현합니다. 상황이 그 지경이 되면 그 세상 가치들의 결정적 한 방에 우리의 마음이 KO 당한 겁니다. 사족을 못 쓴다는 말이 사지를 못 쓴다는 말이잖아요? 어떨 때 우리가 두 팔과 두 다리, 그러니까 사지를 못 씁니까? 결정적 한 방에 얻어맞고는 매트 위에 드러누워 KO된 상태일 때가 바로 사족을 못 쓰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족을 못 쓸 만큼 좋아한다는 것은 마

음이 좋아하는 것에 완전히 KO당해 버렸다는 뜻이지요. 마음이 홀딱 빠져 버린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누구나 동의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카라스키야 같은 무시무시한 적수가 우리 삶에서는 누구입니까? 우선 뭐니 뭐니 해도 돈 아닐까요? 돈이라는 권투선수의 전적을 살펴보면 아마 백전 백KO승일 겁니다. 백 명이 차례대로 돈과 맞붙어 싸운다면 사족을 못 쓸 만큼 돈 좋아하지 않을 사람 있나요? 그렇게 좋아하면 마음의 사지가 사방으로 널브러진 채 KO 당한 겁니다. 정치에 입문한 사람이 대통령 자리를 사족을 못 쓰고 좋아하면 권력이라는 선수에게 마음이 KO패 당한 겁니다. 그러니 사족을 못 쓰지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족을 못 쓰며 좋아하는 모든 가치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다 결정적 한 방을 날려야 할 카라스키야입니다.

3)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의 홍수환 선수가 나옵니다. 사도바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다섯 번째로 자기 변론을 펼치는 모습이 소개 되고 있습니다. 변론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누구보다 더 유대인답게 살았던 골수 분자였음을 밝힙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가를 확증하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했음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던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름 받았음을 언급합니다. 변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예수라는 분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으로부터 예언 되었던 모든 유대인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구약 예언의 성취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사실 말이 자기 변론이지 내용적으로는 거의 복음증거에 방불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의 자기변론이 끝나갈 무렵 세 사람 즉 바울 당사자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립바왕 사이에서 길지 않지만 심각한 몇 마디 대화가 오고 가는데 더 이상 바울의 잘잘못을 가려내려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난 짧은 대화 속에서 홍수환 선수로 하여금 챔피언을 먹게 한 그런 결정적인 펀치를 사도 바울이 날리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체 어느 시점에서 바울은 그런 한 방을 날리는 것일까요?

4) 논리 정연하게 펼쳐지는 바울의 자기 변론을 경청하고 있던 총독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알레르기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기서 학문이란 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마디 외침 같은 말을 조금 비유적으로 이해하자면 바울의 입에서 술술 나오는 변론을 듣다보니 그 머릿속에는 마치 많은 책들이 들어 있어서 그 내용들이 입을 통해 막힘없이 흘러나오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내용인 즉은 죽은 사람이 부활 했는데 그것이 구약에서 예언이 되었다는 등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미쳤다는 말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요. 도대체 이방인 로마 총독으로선 감당이 안 되는 내용들 뿐 인겁니다. 이러한 미쳤다는 반응에 대해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응답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는 아그립바왕을 향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립바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로마인인 베스도와는 달리 아그립바왕은 유대인이니 만큼 자기가 하는 변론의 내용들을 잘 알아들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한 바울의 말에 대해 아그립바는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도다.”

바로 이 순간 사도바울은 챔피언 먹게 한 홍수환의 그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빈틈을 포착한 것입니다. 아그립바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5) 참 접하면 접할수록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의 뜻이 대체 뭡니까? 뜻을 새겨 보자면 우선은 나를 모범으로 삼으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내가 지금 더 나은 형편에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더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나와 같이 되라는 말은 절대 못하는 법 아닙니까? 넌지시 도대체 왜 그 모양으로 밖엔 살지 못하느냐는 핀잔이 배경에 깔려 있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의 문제는 바로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나와 같이 되라는 말을 건네고 있는 겁니까? 바로 앞에 있는 행 25장에 의하면 지금 이 접견 장소에는 아그립바와 그의 누이동생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 부장들과 가이사랴 도시 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언급했듯이 자기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 형편입니다.

좀 실감 나게 비유하자면 저 같은 사람이 박 근혜 대통령과 총리와 부처장관들 그리고 재벌 총수들이 함께 모인 공개적인 자리에서 온 매스컴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왜 그 모양으로 살고들 있느냐며 좀 살려하면 잠깐을 살더라도 나처럼 제대로 한 번 살아보라는 발언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거지요. 아마 온 매스컴과 인터넷에서 한바탕 난리가 날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 자기 처지를 모르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 미친 사람, 들을 가치도 없는 발언 등등 말이지요. 세상에 별 시답지 않은 미친 사람 봤다며 침을 뱉을 지경이라면 과장일까요? 아닙니다.

6) 지금 사도바울이 자기 변론을 펼치고 있는 재판 장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족을 못 쓰고 좋아하는 이 땅위의 모든 가치들이 기세가 등등하게 총 집결 되어있는 곳입니다. 돈이라

는 카라스키야가 있고 권력이라는 카라스키야가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존귀와 성공이 집결된 곳입니다. 홍수환 선수는 링 위에서 카라스키야 한 사람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사족을 못 쓸 만큼 좋아하는 모든 이 세상 가치들이 떼거리로 달려드는 상황에서 혼자 맞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지를 못 쓰도록 KO시킨 카라스키야 같은 가치들 말씀이지요.

그러면 대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뭐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돈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돈에 끌려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권력에 한 방 맞고 사족을 못 쓰며 KO 당한 채 홀딱 빠져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그 것에서 마음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있는 모습들이 보고 있기 민망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딴에는 위엄을 갖춘다고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고 힘주며 앉아 있는 모습은 참으로 애처롭기가 그지없다는 말이지요. 집도 절도 없고 꾸린 가정도 없고 돈도 권력도 존귀나 명예도 없지만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그 누구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부귀영화 없지만 부귀영화 다 모아 가지고 있을 때 보다 자기의 형편이 더 좋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처럼 카라스키야 같은 무적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이 모든 세상 가치들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의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한 방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께 올인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예수님께 올인 할 때 부활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해서 계신 그 곳의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은총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 18절의 말씀에 언급되고 있듯이 천국을 내 기업으로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천국이 지금 당장의 현실감 안에서 내게 다가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언제나 지금의 현실감 안에서 내게 아버지로 다가 오십니다. 지금 당장 생기는 이 현실감 안에서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천국이 내 몫의 기업이 될 때 우리는 결정적 한 방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 복음은 이 세상 모든 가치들을 갖게 해주는 힘이 아니라 이기에 해주는 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한 방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근원으로부터 이 결정적인 한 방의 힘을 활성화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어떤 상황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에게만 올인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